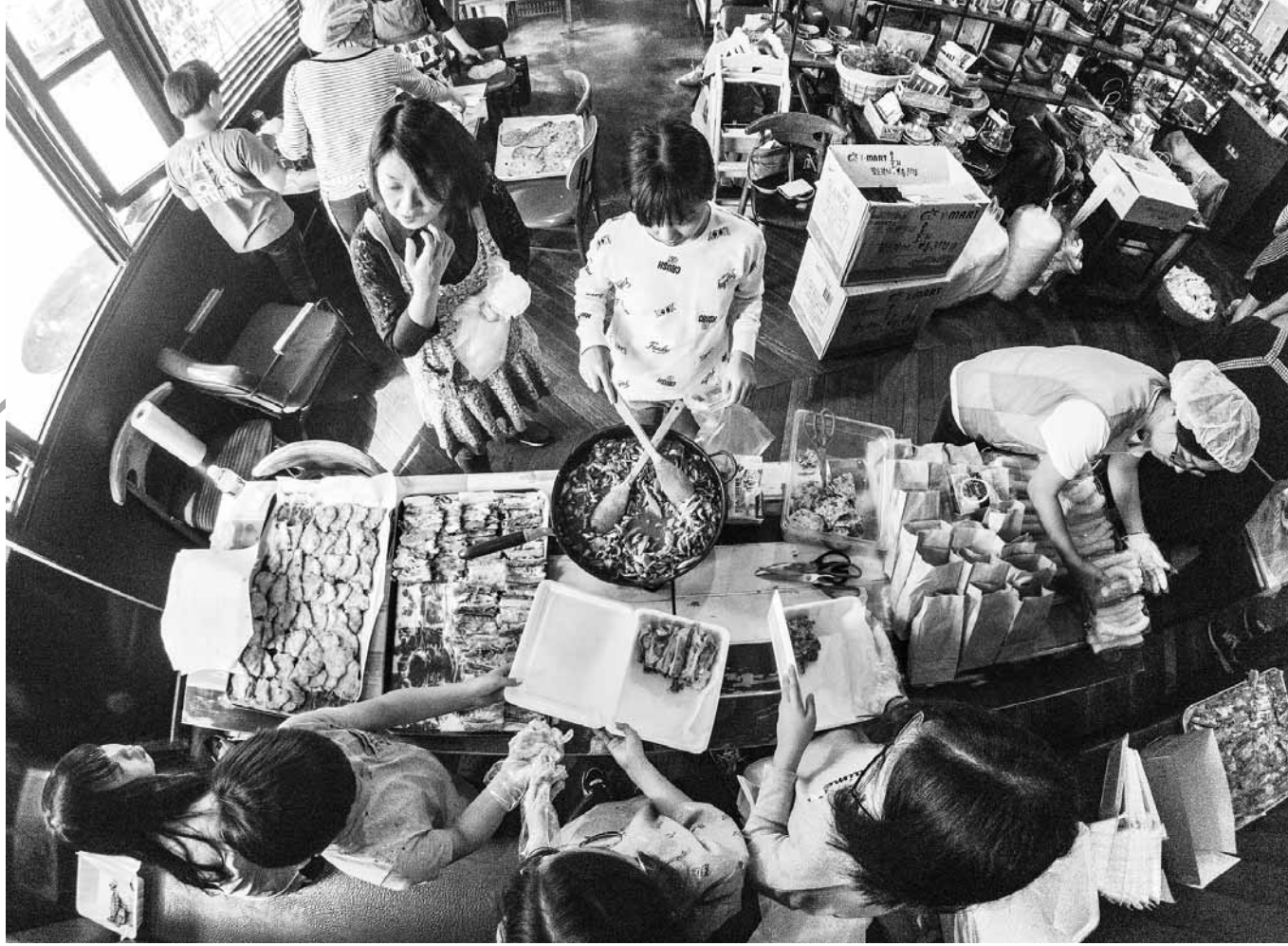


“정성 가득 한 끼 나누며 사랑 가득한 세상 만들어요”

지산중학부모봉사단 ‘추석맞이 반찬 나눔’

지난 23일 오전 8시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어느 멋진날’ 패밀리 레스토랑 한쪽에서 ‘지산중학교 학부모 봉사단원’들이 분주하게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멋진날’ 대표이면서 요리 전문가인 박은연(여·38)씨의 진두지휘로 이날 오전 11시께 이웃 ‘홀몸 어르신과 불우 아동’에게 전달 맛있는 반찬 만들기가 마무리됐다. 봉사단원들은 29일에는 인근 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을 모시고 추석맞이 ‘한상 차림’ 이벤트도 연다.



지난 23일 오전 ‘지산중학부모봉사단’의 봉사단원들이 광주시 북구 양산동 ‘어느 멋진날’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 복지의 시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전달을 위한 명절 음식 등을 손수 만들고 있다. <왼쪽> 이날 반찬 나눔 행사에 참가한 김태린(11)양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불펜을 쥐고 한 할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학부모·자녀 22명 참여

김치 버무리고 감자탕 만들고

떡 포장하고 신선한 과일 준비

홀몸 어르신 등 소외이웃에 전달

사랑 듬뿍 담긴 편지도 써

나눔의 크기가 중요한가요?

마음의 크기가 더 중요하죠

2014년 11월 박은연 대표가 문을 처음 연 ‘어느 멋진날’은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샐러드 등이 주메뉴인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유기농 음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그곳도 손님을 생각해 손수 친환경 소재로 직접 만들었다고 한다.

박 대표는 레스토랑 운영이 어느 정도로 자리를 잡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유기농 음식재료를 만든 음식을 지역 어르신에게 대접하고 있다.

박 대표의 이 같은 나눔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3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규모가 커졌다.

박 대표는 “기업이나 큰 봉사단체에서 하는 대규모의 나눔행사에 비하면 보잘 것 없지만, 나눔의 크기나 규모

보다는 봉사를 하려는 마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동네 주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봉사활동에 조금씩만 힘을 보탠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어느 멋진날’ 박 대표를 중심으로 올 초 꾸려진 ‘지산중학부모봉사단’은 저마다 익숙한 솜씨로 반찬을 만들어 지역의 이웃과 나누는 ‘함께 나눠요! 홀몸어르신 반찬봉사’의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

광주시 북구 본촌동에 있는 지산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로 이뤄진 ‘지산중학부모봉사단’은 현재 30명에 이르며, 지난 5월부터 시작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어느 멋진날’에 모여 이웃에게 전달할 반찬 등을 만들고 있다. 1남 2녀를 둔 박 대표는 첫째딸이 지산중학교 1학년이다.

추석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반찬나눔행사에는 ‘지산중학부모봉사단’ 학부모 14명과 자녀 8명이 참가했다. 이날 봉사 참가자들은 매콤한 향과 고소한 향이 더해진 배추김치와 무 김치를 직접 버무리고 감자탕과 오징어 초무침도 만들었다. 매일 만드는 반찬은 누구나 쉽게 즐겨 먹을 수 있는 메뉴로, 제철 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반찬나눔행사에서는 특별히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명절 음식도 미리 준비했다. 학부모 5명과 학생 3명이 한조가 돼 산적과 전 등을 만드는 모습에서 따뜻한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지산중학교 1학년 유성룡(14)군은 “직접 요리를 해보니 어려우면서도 재미있었다”면서 “특히 우리가 직접 만든 음식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이웃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보람도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테이블에선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가래떡과 백설기 등을 포장하고 추석 상에 놓아도 될 정도로 크고 신선

한 사과와 포도 등 과일도 빠짐없이 준비했다.

본촌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김서현(11)양과 김태린(11)양은 레스토랑 한쪽에서 홀몸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전달할 사랑이 듬뿍 담긴 자필 편지를 썼다.

두 어린이는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항상 건강하고 오래 사세요”라는 내용 등이 담긴 편지를 완성한 뒤, 색연필을 이용해 편지지도 예쁘게 꾸몄다. 이들은 이날 직접 쓴 편지를 손에 들고, 반찬 전달 활동에 참가했다.

이날 봉사단이 만든 음식은 양산동 주민센터를 통해 받은 11명의 홀몸 어르신과 6명의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17세대에 전달됐다.

반찬 전달로 시작된 이들의 봉사활동은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무료점심식사, 주말 무료 쿠키 체험, 도자기 체험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진행했다.

박은연 대표는 “처음에는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 스테이크 등 간단한 음식을 제공해 왔는데, 어쩌다 보니 (봉사활동의)규모가 커져 사실 부담도 있다. 그 래도 나눔에 대한 보람이 훨씬 크고 만족감도 높다”면서 “레스토랑 내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좀 더 큰 공간으로 가게를 옮기고, 주민들과 함께 봉사와 나눔도 이어갈 계획이다. 봉사 참여를 원하는 분은 언제든지 대 환영”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추석명절을 앞두고 모인 ‘지산중학부모봉사단원’들과 아이들이 복지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음식을 만든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능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능)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병원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당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제주도 강정마을 (펜션, 타운하우스부지) 바다 한라산 조망권최상 대지 15,716㎡ 매매가 평당220만원(교환, 조정가)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동구 지산유원지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대지 3,041㎡ 매매가 평당70만원(조정가)
- ★ [토지] 담양군 창평면 장화리 대지 7,226㎡ 매매가 평당50만원(조정가)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